

철강·조선·석화 '3대 산업' 경영난...전남도 속 탄다

지방세 수입 급감 재정난 가중

전남을 이끌고 있는 철강·조선·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의 영업이익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수입까지 급감하면서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포스코의 경우 지난 2009년을 정점으로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역경제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골목 산업이면서 지역 주력산업의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동시에 바이오·생물·신소재·우주항공 등 미래산업의 성장을 통한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포스코 지방세 4년만에 4분의 1

여수산단 이익률 '마이너스'

미래 전략산업으로 구조개편을

광양시는 지방세인 도세와 시군세는 모두 1919억원 징수했으나 4년이 지난 지난해 말에는 1681억원으로 오히려 238억원이 줄었다. 특히 시세는 감소폭이 388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광양시 경제의 3분의1을 차지하는 포스코의 지방소득세(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의 10분의1) 가운데 시세가 지난 2009년 말 903억8800만원에서 2013년 말 236억원으로, 1/4 토막이 났기 때문

이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지방비로 가능했던 사업을 국·도비로 대체하면서 시장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산과의 경쟁 등으로 인해 포스코의 수익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석유화학산업의 거점인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들의 영업이익률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영업이익이 지난 2010년 1조1780억원에서 2013년 4878억원으로, 한화케미칼은 지난 2010년 4832억원에서 2012년 1412억원으로 각각 영업이익증감률이 -66.82%, -70.78%를 보였다. 매출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이익은 줄어드는 '속빈 강정'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영업이익이 2조 8411억원에 이르렀던 LG화학 역시 점차 내리막에 접어들면서 지난해에는 1조 7430억원으로, 지난 2011년 2조200억원이었던 GS칼텍스는 2012년 5109억원으로 각각 하락했다.

지역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산업들은 지난해 말부터 침체를 벗어나는 양상이지만, 중국 등 세계 각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거와 같은 영업이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지역 조선업체 가운데 자산규모 50억원 미만이 전체의 70%, 연간 매출액 130억원 미만이 83%를 차지하는 등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으로, 앞으로도 수익 증대가 어렵다는 전망도 있

다. 세계 10대 조선업체 중 하나인 현대중공업이 지리한 영업군이 지난 2009년 징수한 군세는 501억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473억원으로 28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전남지사 직무인수위원회 역시 이 같이 위기에 봉착한 전남의 3대 주력산업의 타개책을 논의함과 동시에 전남 산업지도의 개편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경제분과 한 위원은 "전남의 미래산업이 상대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며, 이를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주력산업화하는 전략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김창회기자 chkim@kwangju.co.kr

BRASIL 2014

박주영 '의리 기용' 한국 참패 불렀다

알제리에 2-4...16강 '가물'

홍명보의 '의리사커'가 알제리에 농락당했다. 한국은 2-4 총격전 완패로 16강 좌절 위기에 놓였다.

<관련기사 2·7·18·19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3일(한국시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열린 2014 브라질월드컵 본선 H조 2차전 알제리와의 경기에서 전반에 3골을 내주는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이며 2-4로 완패했다.

1무1패(승점1·골득실 -2골)를 기록한 한국은 같은 날 벨기에(2승)에 패한 러시아(승점1·골득실 -1골)와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에서 밀려 H조 꼴찌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개인적 선호도에 치우친 '의리 사커'의 한계와 단조로운 전술이 불리한 재앙이었다고 지적했다. 홍 감독은 의리를 고집하며 박주영을 다시 중용했지만, '슈팅 제로'에 그칠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다.

홍명보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다. 러시아를 1-0으로 꺾은 벨기에가 2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가운데 한국은 1무1패로 최종전에서 벨기에를 큰 점수로 이기고, 러시아가 마지막 경기에서 이기거나 비겨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 홍 감독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빨리 선수들이(정신적·육체적으로) 회복해야 한다. 선수들을 안정시켜 마지막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임병장 소총 자살 시도 43시간 만에 "상황 끝"

GOP 총기난사범 생포

동부전선 GOP(일본전초)에서 총기난사 뒤 무장탈영한 임모 병장이 23일 오후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한 뒤 생포됐다.

<관련기사 6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2시55분께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소재 아산에서 본인의 총기로 자해한 임병장을 생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자신의 소총으로 왼쪽 가슴 위쪽에서 어깨 사이를 쬐고, 헬기로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임 병장은 의식이 있으나 출혈이 많은 상태"라며 "출혈이 지속되면 의식이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병장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 사건은 발생 43시간 만에 종료됐다.

군 관계자는 "아버지와 형이 임 병장과 7~8m 떨어진 거리에서 휴대전화로 투항을 권유했다"며 "임 병장이 '나가면 사형당하는 것 아니냐'고 물은 것으로 보아서 뒷일을 걱정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버스 언제와?" 광주 시내버스가 12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23일 오전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앞 버스정류장에서 등굣길에 나선 학생 등 시민들이 평소보다 늦게 오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노사정 입씨름에 발목인 시민들

광주시내버스 12년만에 파업...출·퇴근 불편 현실화

광주시내버스 노조가 끝내 파업에 들어가면서 출·퇴근길 시민 불편이 현실화됐다. 시민 불편이 예고됐음에도 중재·협상력 부재로 파국을 막지 못한 광주시와 버스회사 뿐 아니라 열세를 투입해 운영되는데도 '임금 인상'을 위해 시민을 볼모로 삼아 파업에 나선 노조를 향한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부스

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은 23일 새벽 5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전남 광주시·버스회사측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협상이 결렬된데 따른 것으로, 버스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은 지난 2002년 3월 30일 이후 12년 만이다.

노조는 전날 밤 광주시 중재로 사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노조측의 임금 5.29%(15만6000원) 인상에 맞서 3%(9만5000원)를

고수하는 사측이 팽팽히 대립하면서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광주시는 양측에 중재안으로 3.62%(11만5000원)를 제시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17~18일 조합원 134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참가한 조합원 1063명 중 92.6%(986명)의 찬성으로 23일부터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예고했다.

<2면으로 계속>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위풍당당

위성미 US여자오픈 우승
메이저 첫승 통산 4승 ▶20면

내일의 월드컵 (25일·한국시간)

이탈리아	D조 오전1시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D조 오전1시	잉글랜드
일본	C조 오전5시	콜롬비아
그리스	C조 오전5시	코트디부아르

월드컵 스코어보드

대한민국	2:4	알제리
벨기에	1:0	러시아
미국	2:2	포르투갈

NEW 주름개선기능성 식품(의약품)인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바로 오늘이어야 하니까

갈색 솔잎 에너지로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한울 율령원액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항상 과거에만 있나요? 기존 대비 3.8배* 농축된 갈색 솔잎 추출물을 담아 세로위진 한울 율령원액을 만나보세요. 갈색 솔잎 추출물이 무더진 피부를 깨우고 피부 속 깊이 촉촉한 생기를 전달하니까 맑고 생생한 피부를 가진 오늘이 당신의 가장 예쁜 날이예요.

*비타민 B2가 함유된 갈색 솔잎 추출물 500mg 기준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를 위한 5가지 피부 개선효과

1. 피부가 촉촉하게 재워지는 느낌이다	100%	2. 피부가 부드럽고 매끄러워졌다	99%
3. 윤기가 나빠져 한결 어둡어 보이는 것 같다	99%	4. 피부가 탄력 있게 느껴진다	99%
5. 단단하게 자란다	98%		

한국·미국·일본, 대만에서 100% 판매처, 약도·비타민(www.apms.co.kr)에서 무료로 만나주세요. *고객상담실 (062-222-8111)